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 저지해 달라

전국인쇄인비상대책위, 청와대 · 한나라당에 탄원

1. 정의사회 구현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2.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외 13개 인쇄단체가 2008년 5월 26일자로 표제의 건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우리인쇄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우리나라 인쇄산업 현황은 전국 2만여 중소기업체에 70만 인쇄인들이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금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따른 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덤핑으로 출혈경쟁이 행해지고 있으며, 원부자재 가격의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4.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영세중소기업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망을 갖춘 한솔그룹이 인쇄업체를 인수하여 2015년까지 5천억 원의 매출 목표를 잡고 있어 이는 전국 인쇄업체의 연간 매출액 3조 5천억 원의 14%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천여 중소기업체가 줄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5. 그 동안 우리 인쇄업계는 2007년 10월 인쇄업계 대표들과 한솔제지와 의 면담에서 인쇄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쇄업 진출대신 협력업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업체추천을 요청한 바 있어 8개 인쇄업체를 추천한 바 있으나 우리 인쇄업계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인쇄업체를 인수한 것은 인쇄업체의 정보만 취득하고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벌들의 부도덕한 처사로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우리 인쇄업계가 그 동안 한솔제지의 종이를 사용하여 한솔그룹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라 할 수 있는 인쇄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량 도산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재벌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국인쇄인비상대책위원회(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는 최근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을 저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탄원서를 6천여 명의 서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했다. 다음은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이다.

6. 타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 한솔그룹이 중소기업형 업종인 인쇄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7. 특히 인쇄물은 제조원가중 종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나 되어 종이를 직접 생산하는 한솔그룹이 인쇄업에 진출할 경우 경쟁자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벌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력에 중소기업체는 고사될 수 밖에 없습니다.

8. 우리 인쇄업계에서는 그 동안 한솔그룹에 직접 인쇄업계의 실정을 설명하고 인쇄업 진출을 자진 철회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등 다각도로 관계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 국가업무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재차 우리 70만 인쇄인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전국 인쇄인의 염원이 담긴 한솔그룹 인쇄업 진출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오니 우리 인쇄인의 어려운 처지를 심분 이해하시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해서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솔그룹이 중소기업형 업종인 인쇄업에 직접 진출하지 못하도록 재차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정석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희준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완표
 충청북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동욱
 전라북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함 청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철안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홍우동
 부산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노길용
 인천광역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응선
 강원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호강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구자빈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만
 제주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강규진